

반도체株 부활 신호탄?... 삼성전자, 연중 최고치 경신

미국증시 반도체 주식 훈풍 영향
삼성전자 6만8400원 1년래 최고
SK하이닉스, 지난주에만 11% ↑

증권가 “하반기 수급개선 예상
현재실적 바닥 통과중이 확실”
외국인들도 삼성·SK 풀림현상

미국 증시의 반도체 훈풍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주와 더불어 관련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가로 마감했으며, 지난주에만 11%가 올랐다.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종가는 각각 6만8400원, 9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7300원이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 AMD 등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상승했다. 이러한 미국 증시 흐름과 삼성전자 감산 효과에 기대감, 일본 정부 차원의 투자금 확정 등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도 2차전지 다음의 시장 주도 주자로 반도체주 강세를 꼽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 이상 감산에 따른 공급축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글로벌 D램, 낸드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재고 감소, 가격하락 둔화,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등으로 분명한 수급 개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실적이 바닥을 통과 중인 것은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업계 웨이퍼 투입 축소가 (-)25% 수준으로 올 3분기까지 지속되면 올해 D램 생산은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이라며 “3분기부터 공급 부족 구간 진입을 예상하며, 축적된 재고의 소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풀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조3000억 원 가량 순매수했으며,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도 3615억 원 어치 사들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 종목으로 현재까지 약 9조1355억 원을 순매수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의 저점 탈피 기대감과 일본 증시의 강한 랠리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확대에 일조했다”며 “외국인의 주식 매수 지속 여부는 중국 경기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재고 감소

속도에 달렸다”고 예측했다.

최유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외국인이 지분율을 높이는 종목은 반도체와 같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자동차처럼 실적이 호조를 보인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수급 흐름이 반도체 업황 바닥을 확인했던 2019년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증시에서 ▲하나머티리얼즈(15.26%) ▲하나마이크론(6.06%) ▲동진세미캠(14.29%) ▲솔브레인(7.49%) ▲ISC(13.72%) 등이 시장을 주도하며 업종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15.8%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인 TSMC(58.5%)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포스코이앤씨, 생물다양성 보존 홍보 나서

세계 벌의 날 맞아 ‘Happy 벌’s Day’
어린이·가족 등 3000여명 참여 성황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이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어린이 꿀벌 축제 ‘해피 벌스 데이(Happy 벌’s Da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이앤씨가 건국대학교, 인천시설공단, 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꿀벌 개체 수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꿀벌은 세계 100대 농작물의 71%를 수분하는 매개로, 인류의 식량 및 생존에 유익한 곤충이나 기후변화, 먹이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에서만 수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20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어린이 꿀벌 축제를 열어 미래세대 꿀벌 체험 교육, 생물다양성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십 억 마리 이상이 사라지는 등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약 3000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여 큰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에는 꿀벌 체험 프로그램, 다채로운 환경 공연, 경품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이 꿀벌과 밀원식물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꿀벌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꿀벌 정원 시계 만들기 ▲벌 키링 만들기 ▲벌 MbeeTI TEST ▲벌 보드게임 등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해 쉽게 배우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더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마술쇼, 생물다양성 퀴즈쇼 등 각종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린이 꿀벌 축제와 도시양봉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왼쪽)과 이미경 네이버 해피빈 리더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친환경 사회공헌 앞장

네이버 해피빈과 업무협약 체결

한화투자증권이 네이버 해피빈과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이미경 네이버 해피빈 리더 등이 참석했다.

이번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6월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특히 MZ세대들이 친환경, ESG 관련 퀴즈에 참여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캠페인 종료 후 참여자들이 응원하는 환경 단체 2곳을 선정해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관희기자 wkh@

금감원, 내달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공인회계사회·한국XBRL본부 공동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XBRL은 기업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오는 6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리는 XBRL 국제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 협회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

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제 XBRL 콘퍼런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XBRL 재무공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 말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호반건설

충남 산불피해 지원

이재민 성금 1억 전달

호반건설이 지난달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는 활동에 동참했다.

호반건설은 최근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구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4월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도왔다.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 성금과 구호 텐트를 전달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전국 4개 단지서 1814가구 분양 개시

분양 캘린더

상무 센트럴자이 등 2곳 견본주택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1814가구(일반분양 11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롯데캐슬그랑파르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씨티 검단신도시’,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 센트럴자이’ 등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8블록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22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972가구 규모다. 단지에는 제2남해고속지선, 김해국제공항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도보권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인근 평강천 수변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